글로벌 K-불교 강의 개발 '본격화'

동국대 불교학술원 'K학술확산연구소' 개소 · 현판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7월 선정 'K학술 확산연구' 전담
소장 김종욱교수 맡아 진두지휘
불교통한 한국국제성 연구 진행
5년간 5백개 온라인강좌도 제작

불교를 통해 한국의 국제성을 조명하는 연구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연구기관이 문을 열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은 11월 4일 충무로영상센터 신관에서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 윤성이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김관규 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K학술확산연구소'는 지난 7월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주관하는 'K학술확산연구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불교학술원 산하에 신설됐다. 연구소는 향후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5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불교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연구 ·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연구소의 소장은 김종욱 불교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연구책임자 1인(동서비교철학 전공) · 일반연구원 11인 · 전임연구원 4인 등이 참여한다. 연구원 중에는 예일대, 콜럼비아대, 파리대 등 해외 한국학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

'불교의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성의 글로컬리티'를 주제로 한 연구는 △1단계(1~3년) Glocal Korean Buddhism: Locality and Globality △2단계(4~5년) Post-glocality: Now and Future in Korean Buddhism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를 통해 △역사와 전통 △언어와 문화 △인물과 사상 △사회와 일상 △세계와 미래 등 5개 범주에서 한국어 · 영어 · 프랑스어 자막의 72분 분량 온라인 교육 콘텐츠 500개를 개발 · 보급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될 예정이다. 또한, 소스북 · 텍스트북 · 국문 및 영문 연구서 등도 출판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11월 4일 충무로영상센터 신관에서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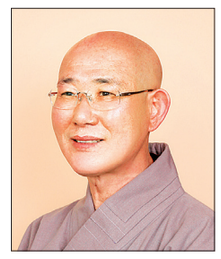
김종욱 K학술확산연구소장은 "동국대의 K학술확산연구사업은 한국학으로서 불교를 글로컬리티 관점에서 조망하고 포스트글로컬리티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학의 국제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연구사업은 동국대의 교육 인프라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K-MOOC 참여를 통해 온라인교육 경험과 설비가 구비되며, 해외대학에서 활용 가능한 불교학 교재 제작과 학점 인정과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해외 석학 참여를 통한 국제 불교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세계적 불교학센터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은 최근 한국 대중문화에 편중된 세계인들의 관심을 한국학 전반으로 이끌어 전 세계 한국학 연구 ·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5년간 총 500억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각 2개팀, 동국대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각 1개 팀이 선정됐다.

재개한 뇌허불교학술상 첫 수상자 마성 스님

불교평론, 11월2일 수상자 발표
저서 〈초기불교사상〉 높게 평가
12월 23일 불교평론서 시상식



한국불교학의 태두 뇌허 김동화(1902~1980) 박사의 학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불교평론〉은 "평생 초기불교 연구에 매진해온 마성 스님을 새로 재개한 뇌허불교학술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수상저술은 올해 발간한 마성 스님의 저작 〈초기불교사상〉이다"라고 11월 2일 밝혔다.

마성 스님은 스리랑카와 태국에서 초기불교를 공부했으며, '삼법인설의 기원과 전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대표적인 초기불교 연구자이다. 올해 발간한 저작인 〈초기불교사상〉은 "불교가 흥기하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초기불교의 기본교설, 실천수행론 등 방대한 자료를 참조하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불교평론〉은 "마성 스님의 저서는 긴 시간동안 초기불교 연구에 매진한 결과를 연구와 수행의 두 영역으로 아우르는 책이고, 초기불교는 물론 불교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성 스님은 수상소감을 통해 학자이자 승려로서 초기불교사상 저변 확대를 위한 대중적 글쓰기를 이어 나갈 것을 밝혔다.

스님은 "때로는 난해한 논문보다는 짧은 칼럼 한 편이 불교도의 의식을 변화시켜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며 "초기불교사상의 저변 확대와 불교교화를 위한 대중적인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23일 오후 6시 불교평론 세미나실에 개최되며, 상금은 500만 원이다. 신성민 기자

"청담 대종사 선양, 종단 차원서 진행을"

청담스님 조명 학술세미나서
추모 강연한 월탄 스님 주장

정화운동 당시 6비구 이끌어
비구의 8대원칙 상시 강조해
왜색불교 청산위한 강한의지


前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이 11월 4일 열린 청담 스님 추모 학술세미나에서 추모강연을 하고 있다.

해방 직후 왜색화된 불교를 바로 잡기 위한 정화운동을 이끌었던 근현대 선지식 청담 대종사에 대한 선양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화운동 당시 할복 6비구 중 한 명인 前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은 청단문도회와 청담장학문화재단 주최로 1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 청담 스님 열반 5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추모강연자로 나선 월탄 스님은 정화운동 과정을 술회하며 청담 스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회고했다.

월탄 스님에 따르면 청담 스님은 1600년 한국불교사에서 대처식육으로 대변되는 왜색불교 청산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비구 8대 원칙'을 강조했다.

청담 스님이 주창한 '비구 8대 원칙'은 △독신 △삭발염의 △3인 이상 단체수도 생활 △20세 이상인 사람 △불주육초(고기 · 술 · 담배 금지) △살도음망(殺 · 盜 · 淫 · 妄)을 하지 않을 것 △백치가 아닌 자 △비불구자이다.

월탄 스님은 "청담 스님은 항상 제게 '할복 6비구'임을 강조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비구 8대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국불교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으셨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종단 정화를 이끌었던 청담 스님에 대한 선양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탄 스님은 "월하 스님, 경산 스님, 벽암 스님 등 모든 비구 스님들을 데리고 종단정화를 이끈 선지식이 바로 청담 스님"이라면서 "청담 스님에 대한 기념행사를 한 사찰에서 맡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 한국불교와 청담 스님'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청담순호의 마음 인식과 정화 이해(고영섭, 동국대) △청담 심학과 정화운동(유승무, 중앙승가대) △청담의 불교현대화 사업과 정신 계승(김광식, 동국대) △청담 스님의 정화정신과 불교근대화(이광준,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등 청담사상과 정화운동, 불교현대화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암 투병 70대 불자, 동국대 경주캠에 전 재산 기부

11월 1일 평생 모은 1억 원 건네
"조건없어… 훌륭한 인재 육성을"

암으로 투병 중인 불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해 화제다.

불자인 조말순 여사(73)는 11월 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전 재산을 기부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조말순 여사를 대신해 딸 김유운 씨가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을 찾아와 모친의 뜻과 함께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부산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과 천불정사 공양주로 봉사하고 있는 기부자의 언니 조정자 씨가 함께했다. 조말순 여사는 젊은 시절 사별 이후 양산 애육원에서 30년 동안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며, 외동딸을 간호사로 키워냈다. 외동딸은 호주에서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홈스글렌대학 간호학 강사로 재직 중이다.

조말순 여사는 "기부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 단지 저와 같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훌륭한 학생들을 잘 키워달라"는 뜻을 전했다.

외동딸 김유운 씨는 "어머니께서 평생 남들을 위해서 사셨는데 이제 마지막 회향을 앞두고도 남을 위해 뜻을 내셔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직접 품에 가져 온 현금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오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보살님의 뜻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말 뜻에 맞게 잘 하겠다"라며 "좋은 인재를 키우는 데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의원 망발' 사과

11월1일 최고위 회의 브리핑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한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에 대한 당사자의 사과나 사실 정정 등의 후속조치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를 질타하는 불교계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월 1일 최고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특정사찰 등을 거론하며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달라 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는다"면서 "조계종,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지도부 입장을 논의한 결과 해당 발언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다수 문화재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불교계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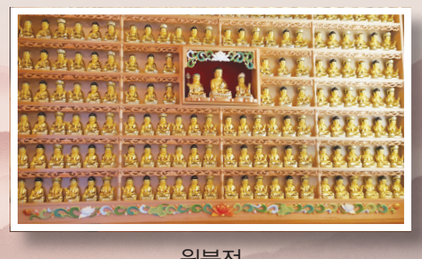
저희 금륜사는 1991년 회사설립 이후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을 올린다는 서원으로 인등을 비롯한 불사용품 제작에 장인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30년의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와 최적화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끊임없는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고집스럽게 원목과 최상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 금륜사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로 고객지향의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010-3781-2460 / 031-534-0048 / 팩스 031-532-2468


불단 · 닫집 · 인등


영단


원불전